

美 금리 인상 종료 기류...한국도 당분간 동결 전망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도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긴축 효과' 한국, 긴축 속 가계대출 증가·물가 불안에 추가인상 여지도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다시 현재 수준(5.25~5.50%)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은행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은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여건 긴축'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과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기대하고 있다.

◇파월 발언, '매파 성향 약해졌다' 평가=파월 의장은 이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난해 중반 이후 완만해졌다.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했다"며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7%로 8월과 같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한두 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뒀지만, 시장은 대체로 예전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30일 7연속 동결할 듯...불안한 가계대출·물가 변수=연준의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과 파월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 발언 등으로 미뤄 한은도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7연속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현재 금통위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고,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유가 상승으로 다시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하면 내리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 한은은 인상 압박 요인을 하나 덜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제로 멈췄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끝까지 동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여건이 미국과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우리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여름 이후 광범위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뛰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그만큼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재 통화 상태가 긴축적인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있을 정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6연속 기준금리 동결 직후 관련 질문에 "중립 금리 등을 보면 긴축

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긴축 속에서도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물가 경로도 여전히 불안하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중등 상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최근과 같이 유가·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재개 시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유가를 84달러 정도에 상했는데, 90달러 이상으로 오르다면 (물가 등) 예측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유가와 함께 물가가 급등할 경우 한은 금통위원들이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대체로 전문가들은 한은의 딜레마와 동결 기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고,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내년 2분기 소비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한은도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2분기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나서야 한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내년 중반 정도나 피벗에 들어가고, 한은은 이보다 늦은 내년 하반기에나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내년 3분기부터 물가 관리 목표치(2%)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한은은 내년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2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은 전남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관계자들이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농단연 제공>

전남 농민단체 "국회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소병철 의원에 건의문 전달

전남 농민단체가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남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이하 농단연)는 2일 설명서를 내고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는 법 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자은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와 김향숙 한국여

성농업인전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은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 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 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아울렛 '서프라이스 워크' 진행

다음달 12일까지 20% 추가 할인 510여 브랜드 참여 쿠폰 제공

롯데아울렛은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축제 '서프라이스 워크'를 진행한다.

롯데아울렛은 이 기간 연중 최대 규모 혜택을 선사한다. 올해 서프라이스 워크는 작년보다 참여 브랜드가 15% 늘어났고, 추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쿠폰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또 인기 캐릭터 행사와 아웃도어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우선 '지방시', '겐조', '토리버저', '피어리', '라코스테' 등 해외 패션 브랜드와 '코오롱스포츠', '아크테릭스', '르쿠르제' 등 아웃도어, 리빙 브랜드까지 총 51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기존 아울렛

가격에 최대 2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또 엘포인트 10배 적립 이벤트와 상품권 행사로 고객 혜택을 다졌다. 롯데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엘포인트를 10배 적립하며(최대 1000점), 에스오일 멤버스 최초 가입 고객에 한해 주유 할인권 5000원권과 빠른 주유 쿠폰(2000원권) 3매도 증정한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단일 브랜드 40만원(40·60·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겨울 시즌 아웃도어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8일 까지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 남약점에서 '코오롱 스키 워크'를 진행해 겨울 인기 아이템인 '안타타'를 비롯한 다운과 패딩, 신발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로컬이 신세계' 서 지역 농수산물 만나요

광주신세계 9일까지 진행

광주신세계는 3일부터 9일까지 지역 농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로컬이 신세계' 캠페인을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진행한다.

우선 해남 유기한우 등심과 채굴을 각각 100g 당 1만7800원 1만8800원에 1인당 300g 한정 판매한다.

또 굴비(20미 기준)를 1.8kg, 1.6kg, 1.4kg 무게로 다양하게 준비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시중에서 10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영광 참굴비(1.8kg)를 8만4000원에, '못난이 굴비'(1.3kg)는 1만9000원에 판매한다.

전남 대표 과일도 선보인다.

나주배 한 팩(2개)을 1만4000원에 판매하며, 장성 사과 한 팩(4개)에 2만원에 선보인다. 나주배와 장성 사과는 약 200개 선착순 판매한다.

이밖에 해남 흑보리(1kg) 4500원, 강진 귀리(400g) 4500원, 무안 양배추(1개) 7900원 등에 판매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지역농수산물 판매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지역 농어민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